

'아난'은 과연 열등한 인물이었나?

“선불교의 역사는 ‘홍실한 달기’와 ‘새로운 원형’의 창조라는 두 가지 욕망이 뒤엉켜 진동하는 가운데 빛어낸 것이다. 선가에서는 부처의 원형됨을 말이나 글이 아니라 마음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는 이후 선불교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

불교의 원형은 해탈이요, 깨달음이다. 좀더 즉물적으로 상징화되면 석가모니 부처가 된다. 적어도 선불교의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부처의 위상은 확고했다. 아무도 그의 원형됨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넘보지도 않았다.

그러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 선불교를 지향하면서 부처를 대신할 상징으로 고안해 낸 것이 조사(趙師)이다. 이로써 부처의 원형됨을 보존하려는 세력과 조사를 새롭게 원형의 자리에 앉히려는 세력들 간에 치열한 세력다툼이 벌어졌다.

《깨달음의 신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불교에 대한 환상을 깨부수는 책이다. 하지만 그 깨부수는, 당시 사회적 상황과 경전, 조사어록 등을 근거로 한 불교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스러움이 느껴지거나 저항감이 생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이끌어내는 파격의 힘에 매료당하게 된다.

“가설살리기, 아난죽이기” ‘문의 이미지’ ‘종의 형이상학’ ‘의지의 미망’ ‘믿음과 비평’ ‘회통과 일치, 그 점을

깨달음의 신화



“선불교 무엇이 문제인가” 비판적 질문

두 인물 상징화... 조사선언 엘리티즘 엿보여

수 없는 변방에 대하여 ‘방편의 이미지’ “노동과 선” ‘익숙해지기에는 너무 낯선 어떤 것에 대하여’ 등 흥미로운 주제와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의 화두는 무엇이어야 하며, 지금 선불교는 오늘의 문제에 어떠한 해답을 주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새로운 가설과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저자의 글쓰기는 우리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책의 맨 첫 부분인 ‘가설 살리기와 아난 죽이기’ 권은 무척 흥미롭다. 제목에서부터 모종의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저자는 확신에 찬 어조로 천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선불교에서 부처의 수제자인 가설에 대한 신화를 맹렬히 비판하고 나선다. 여기에 반해 아난에 대해서

는 강한 지지를 보낸다. 석가모니 부처를 평생 곁에서 모시며 뛰어난 기억력으로 모든 경전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의 그림자에 가려 철저히 매장당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선불교의 문자원오증은 가설 살리기라는 상징적인 작업과 더불어 사상사적으로 교종에 대한 선종의 정통성 확보, 그리고 인도 불교에 대한 중국불교의 독립선언이라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또 선불교에서 아난과 가설이라는 두 인물을 상징화 하는 작업에서 우리는 선불교의 또 다른 측면, 즉 선불교에는 일종의 불교적 엘리티즘이 잠복하고 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책은 선불교에 대한 비판적 검토다. 선불교의 경이로움이 풀린 용인하지만, 그 경이로움에 매혹되어서는 안되며, 선의 본질적 저항점을 찾아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저자 박재현씨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불교철학을 전공, 석박사를 모두 마쳤다. 현재 서울대와 경희대에 출강중이며, 선불교를 주제로 논문을 집필중이다. <無로 향해 거어가는 달팽이>(시공사, 1998)를 집필했으며, <선불교의 정통성에 대한 의지> 등 몇 권의 논문이 있다. 2002년 교수신문사 주최 제1회 학술에세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푸른 역사, 1만2천원>

이은자 기자 eeel@buddhapia.com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

“느티나무 그늘에 한 번 만이라도 앉거나 누워 보십시오. 굳이 고향 느티나무 그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모든 느티나무는 형제거든요. 아니 이웃사촌의 너른 가슴과 깊은 아랑을 지녀서 누구든 밀어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서늘한 그늘뿐이지만 그 밑에 가면 잃어버린 것들과 꿈꾸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정몽주씨는 <느티나무가 있는 풍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농촌 사회에서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과 별려야 할 수 없는 한 몸이었다. 또한 동네 어귀에 서서 하늘의 신이 항상 인간과 마을을 보살피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 준

것도 느티나무다. 느티나무는 ‘느티 당산’ 즉 ‘신수(神樹)’라 불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나무다.

이 책은 마을 있는 곳이면 어디서 건 볼 수 있었던 한 그루 느티나무를 통해 느티나무에 얽힌 사연, 느티나무가 마을에서 갖는 상징성, 느티나무 아래에서 행해졌던 마을 공동의 식 등 갖가지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우리의 잊혀진 문화와 삶의 근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그 의미를 찾으려는 이를 출판사의 ‘한국의 뿌리 시리즈’ 중 두 번째 권으로 정시인의 섬세한 감수성으로 느티나무 그늘 밑의 사라져가는 한국인의 풍경을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글로 형상화했다. 사진작가 윤병삼씨가 찍은 각 지방의 느티나무 100여 컷이 곁들여져 한층 생생한 감동을 전한다. <이름, 1만5천원>

“나는 누구인가를 묻은 작품”

인터뷰 소설 '염소' 펴낸 김성동 씨

“작가는 모국어의 파수꾼이어야 해요. 요즘 소설의 거의 대부분이 문장과 말투, 사유, 철학까지 우리 것이 아닌 서양의 것을 이야기하지요.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소설가 김성동씨는 만나자마자 서양의 복문 구조를 달아가고 있는 우리 소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의 산방에서 생활한 지 1년 정도가 된 시점에서 소설 <염소>(청년사예를 펴낸 김씨는, 이 소설 <염소>에서 자신의 이런 생각을 그대로 실현에 옮겼다. <염소>는 신작이 아니다. 1980년 5·18직후 <죽고 싶지 않았던 뱀뱀>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던 소설을 다시 손질해 내놓은 것이다.



살아있는 것에 대한 사랑 그리

김씨는 “서정적인 것이 저항적인 것이라는 조금은 유치한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몇 년전 다시 보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싶어서 지난 1년간 세 번이나 읽어가며 손을 썼다”고 밝혔다.

어느 봄날이 세상에 태어나 꼭 여덟 달을 살다가 죽은 흑염소 ‘뱀뱀’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의 화두는 생명이다. 작가는 흑염소의 눈을 통해 존재의 이유와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김씨는 이 소설에 순우리말 60개에 대한 주를 달았다. “소설 쓰는 일을 한다는 것이 엄(嚴)이 많다는 것인가 봅니다. 보장된 공간 속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치열하게 작두 위에 올라서야만 소설이 된다는 말이지요”라고 말하는 김성동씨.

김씨는 내년 초 집을 버리고 산 밑에서 생활하는 증년 사내의 이야기를 다룬 중편 소설 <산>과 시리즈로 기획된 <신동> <묘형> <궁예>의 이야기를 연이어 내놓을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풍경소리에 귀를 씻고



이 책은 지난해 봄 화가 이호 신씨가 가졌던 다섯 번째 개인전 ‘산수와 가람의 진경’에 맞추어 펴냈던 것을 신국판으로 판형을 바꾸고, 스케치와 몇몇 그림을 빼서 부피도 줄여 개정 보급판으로 다시 펴낸 것이다. 답사여행기 성격을 지닌 이 책에는 여행 때에 미처 보지 못

했던 사람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난다. <해들누리 권, 1만3천원>

유년의 우물



솔하게 그려냈다. 현재 시마를 문학회 대표인 홍씨는 “15년이란 시간을 시와 같이 했으면서도 아직 햇살만을 받아 빛나는 나뭇잎 같은 시를

쓰지 못했다”고 겸손해 하며, 눈부신 시를 쓰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 말한다. <마을 권, 8천원>

행복을 여는 부처님의...



있어 담연히 알고 두고 익혀야 할 덕목들에 대해 실한 법문집이다. <효리 권, 3천5백원>

불교의 현대화, 현대의 불교화 제시



현대인의 불교

<현대인의 불교>는 정병조 박사(동국대 교수,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불교인으로 느꼈던 점들을 진술한

어투로 현대인들에게 표현한 고백이다.

이 책은 정 박사가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언론 매체에 실었던 글 가운데 가려 뽑은 것으로, 불교가 현대화되고 현대가 불교화 되어야겠다는 한가지 주제로 다시 다룬 어진 것이다.

정 박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부처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격변의 시대지만 삶의 본래 모습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대인들에게 삶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출판 의의를 밝혔다. <한국불교연구원출판부 권, 9천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금강경(아름다운우리말경전)	우봉스님	효림
3	바로 이번 생애	우봉스님	불광출판사
4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영사
5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화동	은혜나무
6	깨침과 깨달음	박성배	예문서원
7	달라이라마와 도울의 만남	김윤숙	통나무
8	평화로운	틱 낫 한	열림원
9	미묘지간	성운스님	불광출판사
10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라이라마	김영사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02173-0695 / 팩스: 02173-0696

부선동이

글 원성스님 원동희 그림 원성스님 / 225쪽 / 28,500원

잊혀진 동심을 화폭에 담은 원성스님, 그 맑은 감동을 글로 빛어낸 또 하나의 책!

차한장의 풍경

혼탁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차향이 넘치는 맑은 햇차와 같은 진한 감동의 글과 그림!

글 단원 김창배와 다인동 그림 단원 김창배 / 305쪽 / 21,300원



솔과학 서울 용문구 영인동 276-1 1층B/D 5B
전화 021725-8655 / 팩스 021725-4656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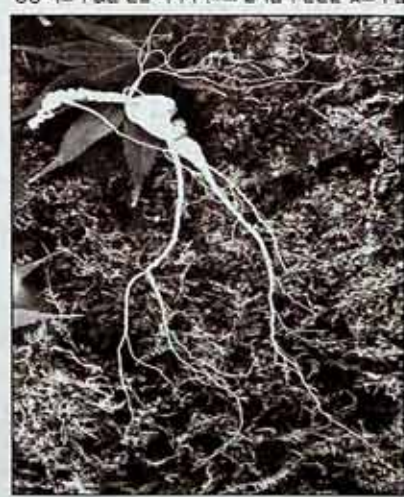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골촌리에 지친 수행승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알콜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체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정뇌?

산삼은 전통, 자중, 인종, 경치 4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뇌하루는 스님 오날도 養生 求道의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친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轉換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佛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하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佛恩을 祈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